

유네스코 공공도서관선언의 개정과 의의

현 규 섭

〈공주대학교 도서관교육과 교수〉

유네스코에서는 일찍이 1949년에 공공도서관을 육성하기 위한 국제수준의 권고로서 선언문을 채택하여 세계만방에 공지한바 있다. 1972년에 국제도서의 해(IBY)를 맞아 이 선언문은 일차 개정이 이루어 졌다. 이번에 1995년 3월자로 확정된 공공도서관선언 개정문은 IFLA의 공공도서관 상설위원회에서 초안되어 유네스코에서 승인되었다. 원문은 IFLA Journal 21(1995) pp. 66-67에 게재된 것이다. 〈역자주〉

1. 유네스코 공공도서관선언문 (1995년 개정)

인간사회와 개인의 자유 그리고 번영과 발전은 인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다. 이 가치는 충분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국민이 그들에게 부여된 민주적권리를 행사하고 그 사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비로서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건설적인 참여와 이를 통한 민주주의의 발전은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지식, 사상, 문화와 정보를 자유롭고 무제한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서문 1)*

지역사회에서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중요한 창구인 공공도서관은 개인과 사회집단의 평생교육과 자립적인 의사결정 및 문화적 발전을 도모함에 있어 기본조건이 되는 것이다.(서문 2)

이 선언은 공공도서관이 교육, 문화, 정보의 활력소이며 인간의 마음에 평화와 정신적인 행복을 성숙시키기 위하여 필수적인 기관임을 인식하고 있는 유네스코의 신념을 표명하는 것이다.(서문 3)

따라서 유네스코는 모든 국가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공공도서관의 성장을 지원하고 이에

* 괄호속의 구분은 후술되는 주해와 연결코자 원문에는 없는 부호를 역주자가 임의로 부여한 것이다.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을 권장한다.(서문 4)

공공도서관의 임무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은 모든 이용자가 다양한 종류의 지식과 정보를 간편하게 얻을 수 있게 하는 지역사회의 정보센터이다.(공공 1)

공공도서관의 봉사는 연령, 인종, 성별, 종교, 국적, 언어, 또는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 의하여 평등하게 이용되는 것이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제공된다. 이유야 여하간에 통상의 도서관 봉사나 자료이용이 불가능한 사람들, 예를 들면 소수민족, 장애인, 또는 입원환자나 수형자에 대하여, 특별한 봉사와 자료이용이 제공되어야 한다.(공공 2)

어떤 연령층의 사람들이 요구하는 자료일찌라도 이들 모든 자료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공공도서관의 장서와 봉사내용은 전통적인 자료와 함께 모든 종류의 미디어와 현대적기술이 적용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 수준은 질적으로 높고, 지역의 요구나 상황에 대응되는 것을 기본적 요건으로 한다. 자료는 인류의 노력과 사상의 기억과 함께 현대의 경향이나 사회의 진전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공공 3)

장서 및 봉사는 여하한 종류의 사상적, 정치적, 종교적인 검열에 대하여 굴복하여서는 않되며 또한 상업적인 압력에 대하여서도 굴복하여서는 않된다.(공공 4)

공공도서관은 정보, 준문맹자퇴치(literacy), 교육 및 문화에 관한 아래에 명시된 과제를 부여된 임무의 핵체로 삼지 않으면 안된다.(임무 1)

1. 어린시절부터 아동의 독서습관을 증진 창발시키며 이를 더욱 강화한다.(독서 아동 증진)
2. 각 단계별로 이룩되는 정규교육에 대한 지원과, 개인적 내지는 자주적으로 이루어 지는 교육을 지원한다.
3. 개인의 창조적인 발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4. 청소년의 상상력과 창조성을 자극한다.
5. 전통문화의 인식, 예술, 과학의 업적이나 혁신에 대한 인식을 촉진시킨다.
6. 모든 공연예술의 문화적 표현과 접촉할 수 있게 한다.
7. 이문화간의 교류를 조장하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할수 있도록 한다.
8. 구전에 의한 전승을 지원 유지시킨다.
9. 모든 시민이 여하한 종류의 지역정보라도 입수할 수 있도록 한다.
10. 지역의 기업, 협회 및 관련집단에 대하여 적절한 정보서비스를 행한다.
11. 정보개발을 촉진시키고 쉽게 컴퓨터를 구사할 수 있는 기술을 발전시킨다.
12. 모든 연령계층에 걸친 준문맹자 퇴치활동과 그 계획을 지원하고 나아가서 그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이러한 활동을 스스로 착수한다.

재정, 법령, 네트워크

공공도서관은 원칙적으로 무료로 운영되어야 한다. 공공도서관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행정의 책임하에 있다. 공공도서관은 특정의 법률에 의하여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그 경비가 조달되어야 한다. 또한 공공도서관은 문화, 정보제공, 준문맹퇴치, 및 교육을 위한 여하한 장기정책에 있어서도 중요한 정책요소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재정 1)

전국적인 협력과 조정을 명확하게 정립한 법령과 전략적인 계획에 의하여 도서관 네트워크가 정립되어야 하며 합의된 봉사기준을 통하여 전국 도서관 네트워크가 편성되어야 한다.(재정 2)

공공도서관 네트워크는 학교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뿐만 아니라, 국립도서관, 지역의 도서관, 학술연구도서관 및 전문도서관과 함께 관련되어 계획되지 않으면 안된다.(재정 3)

운영과 관리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되는 목표, 우선순위, 봉사내용이 명시된 명확한 방침이 책정되어 있어야 한다. 공공도서관은 효과적으로 조직되고 전문화된 기준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운영 1)

이용자집단이나 그밖에 전문직단체, 지역별, 전국적,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관련단체와의 협력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운영 2)

도서관에서 제공되는 봉사는 지역사회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적절한 장소에 설치된 도서관의 건물, 독서 및 면학을

위한 좋은시설, 봉사에 상응하는 기술의 구사, 이용자의 편익에 충분히 대응되는 개관시간의 설정이 필수적이다. 동시에 도서관에 올 수 없는 이용자를 위한 확장된 대외봉사(Outreach Servie)가 필요하다.(운영 3)

도서관봉사는 농촌이나 도회지와 같은 서로 다른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각각의 요구에 대응시켜야 한다.(운영 4)

도서관원은 이용자와 자료원과의 중개자이다. 적절한 봉사를 정확히 실행하기 위하여 도서관원의 전문교육과 계속교육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운영 5)

이용자 모두가 자료원(資料源)으로 부터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확장된 대외봉사(Outreach Servie)와 이용자교육 계획이 실천되지 않으면 안된다.(운영 6)

선언의 이행

국가의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자는 전세계의 도서관계와 더불어 여기 공공도서관 선언에 천명된 제 원칙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이행 1)

이 선언은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의 협력으로 기초되었다.

2. 개정선언문의 특징(주해)

유네스코는 1949년에 최초의 공공도서관 선언을 제정하여 문화진흥을 위한 사회적 장치로

서의 공공도서관을 강력히 지원한다는 의지를 국제적인 수준에서 표명한 바 있다. 그 후 1972년에 세계도서의 해(International Book Year)를 선포하면서 공공도서관 선언을 일부 개정하였다. 이 당시에 개정된 선언은 우리나라에서는 필자, 이병목, 이병수 등에 의하여 번역되었다. (현규섭, 서문자 역 ‘유네스코 공공서관선언’. 도협월보, 제13권 제5호(1972.5) pp.23-24. 이병수 역 ‘국제도서관협회연맹 “공공도서관 기준”중의 ‘유네스코 공공서관선언’. 국회도서관보. 제 12권 제5호(1976.6-7) pp.50-52. 이병목 역. “공공도서관개발론/ 헨리 시 캠벨 지음” 중 부록 1 : 유네스코 공공도서관선언. 서울 : 구미무역 출판부, 1985. pp.157-171.)

이번에 2차 개정이라 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 선언은 1994년 11월 29일 유네스코 PGI 제 3 부회에서 의결되었다. 공식적인 공포는 1995년 3월로 각국의 도서관협회와 연관기관에 통고되었다. 개정을 발안한 것은 1991년 IFLA 총회(모스크바에서 개최)에서 이루어 졌으며 유네스코의 PGI 장기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IFLA에서는 Hellen Niegaard(덴마크의 히가로스 공공도서관장)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도서관 상설위원회(Standing Committee for Public Libraries)에서 전담하게 하고 지난 4년여에 걸쳐 심의와 개정을 거듭하였었다. 1994년 8월에 개최된 하마나 IFLA 총회에서 최종안이 제출되었으며 심의과정에서 수정이 가해져 원안이 작성되었다 이 원안은 파리에서 개최된 GPI 회의에 제출되어 최종의결을 거치게 되었던 것이다.

개정된 내용의 특색은 1972년판에서 미온적

으로 표현하였던 부분을 대폭적으로 수정하여 강력한 의지로서 표출한 아래에 주해하는 항목들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인 공공도서관의 기능이나 시설, 장서, 봉사의 내용 등은 전판과 대동소이한 것이어서 구태어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여기서는 이 항목들은 생략한다. 아래에 제시되는 항목은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어려운 여건에 있는 공공도서관의 진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반드시 수용해야할 사항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부각하고자 일부는 1972년 선언과 중복된 항목도 추출하였다.

1) 민주주의의 발전과 수호 :

공공도서관은 한 국가나 사회가 지닌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을 표상한다. 인류 역사상 현금까지 가장 실재(reality)에 접근된 정치제도인 민주주의는 인류의 평화와 생존을 위하여 기필코 수호되어야 한다는 정치적 신념이 필수적이다. 이를 수호하는 길은 정치적인 행위를 직접적으로 조작하는 국민의 지적수준을 제고하는 것이다. 정보와 문화적 수혜는 국민의 사상과 아름다움과 선량함을 함양하는 것이며 이를 통한 건전하고 명석한 판단이 오로지 진실된 민주주의를 실행할 수 있다. 공공도서관의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은 동등한 비례함수인 것이며 그 반대의 경우도 또한 같다.

공공도서관이 발전되어 국민의 지적수준이 올바른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도록 지적수준을 유지하는 과제는 일차적으로 정치권의 책임임을 명백히 선언하고 있다.(서문 1항의 해석)

공공도서관은 인간의 평화와 정신적인 행복을

위한 사회적인 기관임을 강조한다. 인류가 지향하는 평화를 구현하는 필수적인 장치임을 유네스코는 확신하고 있는 것이다.(서문 3항의 해석)

2) 문화복지정책의 핵심적 요소

공공도서관은 문화복지정책의 정책시현기관이다. 문화복지정책은 국민의 건강이나 사고에 대비하는 의료정책이나 보험제도와 동등하게 어떤 국가에서나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정치행위인 것이다. 문학이나 공연예술 등 인간의 의미를 숙고하게 하는 문화행위는 정치환경과 그 국가의 정치행위에 연관되어 있다. 문화복지정책이 저조한 국가에서는 결국 경제적 지위를 퇴락시키며 독재적 암흑정치를 자행할 수 있는 함정을 조성한다. 정책은 산업정책이나 건강복지정책이나 문화복지정책이 동등하게 중시되는 정치이념에 기초되어야 한다. 문화복지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떠한 다른 요소보다도 공공도서관이 지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공공도서관은 지식, 교육 뿐만아니라, 오락, 여가선용 등을 통한 인간의 상상력과 창조력을 조장하는 복합적 문화생산 기구이기 때문이다.(재정 1의 해석)

3) 공공재정으로 운영되는 국영 사업소

공공도서관의 재정은 위에 든 정치적 결단과 함께 전적으로 공공기금으로 운영됨을 원칙으로 한다. 때로 정책결정자는 공공도서관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공공기금에 의존되어야 함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식의 사용은 수익자 부담의 차원과는 전적으로 다른 것이다. 지식은

국민이 무제한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하며 무한히 사용할수록 국가의 이익은 증대한다. 따라서 어떠한 부담도 지식의 사용에 부과되어 제약되어서는 않된다. 공공도서관이 무료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국고나 지방정부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함은 바로 국가의 이익을 무제한적인 상황으로 설정한다는 것이 된다. 선언속에 이 의지는 너무도 명백하며 강렬하다. 특정의 법률(specific legislation)에 의하여 정부의 그 운영비용이 지급되는(financed by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는 공공도서관의 존재방식이 이번 선언에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재정 1의 해석)

4) 정책입안자의 책임 :

공공도서관이 발전되어 국민의 지적수준이 올바른 민주주의를 수호하게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정치의 책임이다.

따라서 유네스코는 모든 국가의 정부가 이 선언을 숭신하여 이행하여야 함을 강조한다. 선언의 종장으로 독립하여 정책결정자에게 권고하는 항목을 독립하여 설정한 것은 차라리 유네스코의 간절한 회구이자 열렬한 소망으로 표현된 것이다. 실제로 정치권이 이 선언에 명시된 바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 선언은 한낱 헛구호에 불과한 것이다(이행 1의 해석).

5) 도서관의 협력과 전국 네트워크

도서관의 협력은 정보시대에 부과되는 기본적인 과제이다. 어떤 도서관도 홀로 독립된 도서관이란 존재 할 수 없다. 이는 협력의 필연성을

제시하는 너무나 명백한 논리인 것이다. 그러나 도서관의 협력은 결코 논리로서 추구되지 않는다. 법령과 전략적인 계획(strategic plans)이 필요한 것이다. 도서관협력은 결국 자율적일 수 있는 소지가 희박한 것임을 나타낸다. 합의된 봉사기준(agreed standards of service)도 이러한 도서관계의 고민을 노정하고 있다. 협력의 최종목적은 전국 네트워크편성이다. 공공도서관의 협력은 이러한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개정 2의 해석)

공공도서관의 협력은 전국의 전체도서관을 연계하는 명실상부한 국가정보망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의미는 사회적인 확산력을 지닌 공공도서관을 상징한 것이다. 모든 국민은 공공도서관을 통할 때 자유롭게 지식에 접근할 수 있으며 그것이 국가적인 지식의 확산을 전제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왜 대학도서관이나 전문도서관 까지 공공도서관의 네트워크에 포함되어야 하는가. 그 해답은 국민의 권리는 최상의 것이며 그 이상의 어떤 권리도 선행될 수 없음을 천명한 것이다.(개정 3의 해석)

협력은 도서관 간의 연결이상의 확대된 활동이어야 한다. 이용자 집단이나 전문직단체와의 연대뿐만 아니라 국제수준에 있어서의 협력도 필수적이다. 세계의 공간적 공유는 컴퓨터에 의하여 확대일로에 있음은 이미 주지된 것이다. 도서관의 협력은 이제 한 국가 한 지역이라는 경계를 설정하여 시행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운영 2의 해석).

6) 정보센터

1972년 선언에 비하여 이번의 개정에서는 정보센터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현대의 사회적인 경향을 반영한 당연한 귀결로서 정보통신망으로 연계된 사회적체제에 부응하려는 조치이다. 1972년판에도 정보의 개념은 강하게 부각되어 있지만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의 문화센터임을 강조하였다. 정보센터와 문화센터의 두 개념은 공공도서관으로서는 배제할 수 없는 양대지주이다.(공공 1의 해석)

7) 공공도서관의 기능

공공도서관의 기능은 전승되어 왔던 교육, 문화, 독서 등에 추가하여 역사의 계승, 준문맹자(Literacy)의 퇴치 등을 부각하고 있다. 전체 기능을 12개 문항으로 열거한 것은 그만큼 포괄하는 내용을 심도 있게 제시하려는데 있었을 것이다. 이를 좀 더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7개문항으로 약술할 수 있을 것이다(표 1 참조).

이상의 7개항에 걸친 주제는 민주국가의 성립과 공공도서관의 발전은 정비례한다는 기본이념에 서있다. 이 표현은 지나칠 정도로 도서관주의에 빠진 자가둔착자의 절규라고(특히 다른 분야에서 볼때)일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영국의 공공도서관법(1885년)이 영국 국민의 나태한 생활을 건전한 국면으로 유도하기 위한 의회로 부터 발안된 법령이었으며 심지어 대영박물관 목록규칙을 의회에서 논의되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제시한다.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미국을 떠 받들고 있는 두개의 지주가 있다. 그 하나는 교회이며 다른 하나는 공공도서관”이라고 말한 사실도 우리는 준거한다. 그 어

서 차	문 항	내 용	선언문항
1.	독서의 습관화	유아기부터의 독서습관을 부여하고 이를 강화	1
2.	교육의 지속화	자율적인 평생교육을 지원.	2
3.	창조력의 증진	국민 각자에게 창조력을 개발 특히 청소년의 창조력, 상상력을 증진	3 4
4.	문화의 진흥	문화예술, 과학의 발전을 인식시키며 공연예술등 문화적 표현과 친근하게 하고 다국간 문화의 융합을 촉진	5 6 7
5.	역사의 계승	구전되는 역사의 보존	8
6.	정보의 배포	지역정보의 충족은 필수적이며 지역의 산업, 단체등에 정보 봉사 컴퓨터기술을 적용한 정보시스템 확립	9 10 11
7.	전문명자의 퇴치	독해력을 증진시켜 이해력을 확산	12

는 누구도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가 공공도서관의 발전과 비례된다는 주장에 반대할 수 없을 것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영위하는 국가는 오로지 영국과 미국이라는 토인비의 단안에서 공공도서관의 발전이 바로 민주주의 발전으로 직결된다는 엄연한 실재를 확인한다.

유네스코는 이 사실을 직시하고 있다. 인류의

번영과 안녕을 염원하는 비 정치적 국제기구인 유네스코가 공공도서관 선언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권장하는 기본 이념은 정치의 민주화이자 인류의 평화이다. 그러나 선언적 의미로만 존재하기 쉬운 유네스코의 이념을 행동으로서 실현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제 우리는 공공도서관인 행동강령을 제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 1996년도 한국도서관협회 신간안내① ◀

정보사회와 공공도서관/오동근 역/신국판, 215면/7,500원(도협 회원에게는 6,000원)

온라인정보탐색/노정순·유재옥 공저/신국판, 557면/16,000원(도협 회원에게는 12,800원)

문학정보학용어사전/시공 철 등편/4×6배판, 679면/50,000원(도협 회원에게는 40,000원)